

# 광주시·전남대 글로벌 대학 본지정 총력

### 지자체-대학 동반성장 업무협약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등 5대 산업 연계 실행계획서 작성 집중

광주시와 전남대학교가 동반성장을 위한 교육부 '글로벌대학 30' 선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대학교는 지난 20일 대학 총장실에서 '글로벌대학30 선정과 지자체-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남대학교 글로벌대학30 본지정 선정 지원,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상호협력 지원, 지자체-산업계-대학의 효율적 동반성장을 위한 연계 발전 방향 설정, 지역 고용창출 및 산업성장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등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 글로벌대학30 예비대학에 전남대학교를 포함해 15개 대학을 선정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대는 실행계획서 작성에 집중하는

등 본 지정에 대비하고 있다. 글로벌대학30 선정 실행계획서는 광주시 특성화 분야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산업 등 5대 산업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전남대가 지역 산업과 연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전남대는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혁신 대학'을 비전으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융복합 고급인재 양성 ▲산학협력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 협력 파트너십 구축 ▲지산학병연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대학혁신 성공모델 창출 등 3대 목표와 5대 추진과제 세부 프로그램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는 그동안 전남대(TF)를 상시 가동하는 등 수십 차례 이상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업무협약을 통해 본지정 실행계획서 작성을 논의했다. 시는 또 팀장급 26명으로 구성된 대학실무추진단과 지역대학 산학협력담당장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전남대학

교 글로벌30 실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전남대에 대한 광주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은 광주를 명실상부한 국토 서남부의 거점도시로 만들어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전남대 또한 거점국립대로서,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과 대학이 함께 간다면 변화된 교육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청년과 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며 "광주시와 전남대는 글로벌대학30 선정에 총력을 다하고, 함께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해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글로벌대학30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방 30개 대학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글로벌대학 본지정 일정은 10월 초까지 대학이 교육부에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는 11월 중 글로벌 대학 10곳을 최종 선정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구-한전MCS 복지 시각지대 발굴 협약 광주 광산구와 한전MCS광산지점은 지난 21일 복지 시각 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지원 하기 위한 업무협약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식을 가졌다.

# 세계 최대 딥러닝 연구기관 광주와 공동 협력체계 구축한다

### 캐나다 '밀라' -인공지능사업단 인재교류·AI 공동연구 등 협력

세계 최대 딥러닝 연구기관인 캐나다 몬트리올 알고리즘 리빙연구소 '밀라'(MILA)가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를 방문해 AI산업 협력 체계를 구축 등에 힘을 보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광주시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프레드릭 로린(Fredric Laurin) 밀라 파트너십 담당 선임 이사, 뤼스 보드리(Robson Beaudry) 시니어 어드바이저, 임용우 주한캐벡정부대표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캐나다 AI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AI사업단-

밀라 국제 협력 네트워크 데이'를 개최했다. 밀라는 기계학습과 딥러닝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으로, 이날 행사에서 국내 AI 기업 및 인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공동연구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밀라는 또 AI사업단의 지원 기업인 AI스타트업 센터, 뉴작 등과 1대1 면담을 진행했으며, 캐나다와 북미 진출 및 공동 연구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밀라(MILA)와 주한캐벡정부대표부는 이날 광주 동구에 있는 'AI 기업 창업의 요람' AI창업캠프도 방문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AI집적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주 기업들을 둘러보는 등 광주 AI산업 생태계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앞서 지난 6월 김준호 AI사업단장은 캐나다를 방문해 퀘벡주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캐나다 최대 규모 스타트업 커뮤니티 네트워크인 마스 디스커버리 디스트릭트(MaRS Discovery District),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마이타스(MitaCS), 몬트리올 알고리즘 리빙연구소(MILA) 등 캐나다 내 AI 핵심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김준호 AI사업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의 AI 인프라와 캐나다의 우수한 AI 기술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AI 기업 및 인재의 글로벌 진출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세계가 주목하는 광주 AI밸리 조성을 위해 AI 산업 관련 국제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추석연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광주시 성묘·벌초때 벌쏘임 장거리 운행 차량점검 등 당부

광주시는 24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성묘·벌초 등 야외활동때 벌쏘임·예초기 사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시역 벌쏘임사고는 2020년 68건, 2021년 108건, 2022년 13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7-9월에 80%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벌쏘임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성묘·벌초때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모자와 긴 옷을 착용하고, 향이 강한 화장품, 향수, 스프레이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 벌이 쏘여 공격할 때는 웅크리거나 엎드리지 말고 무조건 그 자리

에서 20m 떨어진 곳으로 머리를 보호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뱀, 진드기 등 각종 물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산행 등 야외활동때 사고예방을 위해 긴 소매와 발목을 덮는 옷,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 예초기 사용 때는 안전보호대,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등을 착용해야 한다. 작업하는 15m 이내에 사람 접근을 금지하고 칼날 이물질은 반드시 예초기 동력을 차단후 제거해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3년간(2019-2021년) 추석연휴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지역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27건, 연휴기간에는 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추석 앞두고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27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고향길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와 자치구 상시정비반과 365정비반 등 총 70여 명을 투입한다. 중점 정비대상은 ▲주요 관문도로, 광주송정역·광전터미널 주변, 전통시장 주변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

보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지역 불법 전단지 ▲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과 풍선광고물 등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부터 100일간 5개 자치구와 함께 집중호우·태풍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서 불법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19만여 건(정당 현수막 1532장 포함)을 철거하고,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226건을 점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 83곳 선정

광주시는 "광주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함께 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 83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장은 내년 조사 때까지 주 15시간 이상 고용 사업장 80만원, 15시간 미만은 35만원 등 상하수도 요금 보조 혜택을 받는다. 또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 부착, 사업장 홍보도 지원된다. 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인격적인 대우 등을 보장하며 노사 상생을 실현하는 사업장이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소년노동인권 시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알바피해 무료상담(1588-6546), 사업주무로 인사노무 컨설팅,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스타강사 김경일 교수 초청 무료 특별강연

### 광주시, 오늘 시청 대회의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25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스타강사 김경일 교수 초청 여행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행복을 위한 일상 속 여행의 중요성'을 주제로 일상에서 누리는 여행 의미와 가치,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광주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 콘텐츠를 엮어 이야기를 풀어낼 예

정이다. 또 강기정 시장이 '광주 여행토크쇼'에 직접 참여해 김 교수와 함께 미식 광주, 생태 광주, 역사이팅 광주 등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간다. 김경일 교수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음악저작권학회 회장,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 개입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강연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